



▲ 청주·청원지부 사무실 입구 앞에서 현판을 가리키고 있는 정영섭 지부장

어려워진 양돈환경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청주·청원지부

취재 : 정재은

충북 청주·청원지부(정영섭 지부장, 66세)는 양돈을 하는데 어려워진 주변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가 바이오메카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청주·청원지부에서는 오가피 부산물을 사료와 함께 먹이는 사양관리로 차별화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양돈 판매장이 9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회원들이 직접 사육한 것으로 유통회사와 계약을 맺어 회원들이 출하한 돼지고기를 일정 양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각종 기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회원

들에게 원가에 공급해줌으로써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청주·청원지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종 질병발생 현황과 필요한 방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관급백신이 나오면 청주축협에서 바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청주축협(조합장 유인종)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청주·청원지부는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소비촉진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정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장들과 단합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친

목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지역 양돈농가를 이끌어 나가는 충북 청주·청원지부

청주·청원지부는 1980년 6월에 충북 지역에서는 괴산지부 다음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현재 제13대 정영섭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협동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청주·청원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에서 105여 양돈농가가 9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51농가가 청주·청원지부 회원으로 6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회원들 대부분은 1,000두 내외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도시화 진행으로 양돈농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청원군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임원은 정영섭 지부장, 김승수, 최홍렬 감사, 장윤석 총무, 지역별로 김대봉, 장성순, 김은기, 박상섭, 이은영, 성민재, 한기용 이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청원지부는 오가피 부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돈육 생산과 양돈 판매장을 통한 돼지고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단체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월례회의 및 무료시식회, 단합대회 등의 행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오가피 부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돈육 생산 시도

청주·청원지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 충북 청주·청원지부 정영섭 지부장

돈육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원군 강의면 오송리가 바이오메카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흐름에 따라 오가피 부산물을 사료와 함께 먹이는 차별화된 사양방법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고품질 돈육 생산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해나가고 있으며, 충북도 및 청원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농가로 시작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섭 지부장은 “오가피 부산물을 이용하고 있어 돼지고기 품질과 맛 개선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급률도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양돈 판매장으로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유도

청주·청원지부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양돈 판매장이 9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양돈 판매장은 청주 시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안정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주·청



▲ 청주·청원지부는 청주축협, 가축위생방역 충북도본부 등 관련기관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발생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 청주·청원지부는 2003년 11월 1일 충청북도 축산인 체육대회가 개최된 오창 농업기술원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였다. 오가피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품질 돈육은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원지부는 양돈 판매장으로부터 월 60만원의 지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양돈 판매장의 돼지고기는 학교 및 기업체 급식으로 나가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되고 있다. 양돈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회원들이 직접 사육한 것으로 유통회사와 계약을 맺어 회원들이 출하한 돼지고기의 일정 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정영섭 지부장은 “전국의 다른 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양돈 판매장 개설을 통해 양돈농가 스스로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가격형성을 주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재 공급사업과 월례회의 및 시식회 행사 전개

청주·청원지부에서는 현재 니뿔, 보온 등, 이표, 급이기 등 각종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부에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회원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하고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월 11일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 교환을 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의 협조 아래 사양, 방역, 질병 및 경영관리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청주·청원지부는 2004년부터 사육규모 따른 월 2만, 3만, 4만원의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 충청북도 축산인 체육대회가 개최된 오창 농업기술원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였다.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 계속되는 돈가 하락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가피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품질 돈육은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로 각종 지원활동

청주·청원지부는 관련기관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발생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 청주·청원지부 정영섭 지부장(좌측)과 이은영 이사



▲ 청주·청원지부 최미영 간사

가축위생방역 충북도본부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종 질병발생 현황과 필요한 방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돈열, 일본뇌염 등의 관급백신이 나오면 청주축협에서 바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청주축협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충청도 및 청주시·청원군으로부터 정액 구입시 50%, 청원군으로부터 생균제 구입시 50%의 비용 보조를 받고 있다.

한편 1년에 두 번 정도 관련단체장들이 모여 옷놀이 등의 단합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어려운 양돈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정영섭 지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돈 농가 스스로도 노력하고 관련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생산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대형 판매장이 활성화되어 돼지고기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돈을 해나가



▲ 청주·청원지부에서는 시세와 필요한 방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는데 있어 분노처리가 단연 큰 문제이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지부장은 “기본적으로 1,000두 내외의 전업규모 농가들이 건설해야 양돈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양돈자조금법의 건설하고 투명한 시행으로 양돈이 지속 가능한 품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청원지부의 임원 및 회원들은 더 많은 회원확충을 통해 힘을 키워나가고, 모든 양돈현안의 문제가 협회를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단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돈**